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1월

선교편지 제 17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 '캣캣', '족족', '강강', '잭잭', '소이 소이' ... 무슨 재미있는 의성어 같은데, 사실은 현재 디고스 '마띠 은혜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이름' 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속 한편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정다운 이름들입니다. 물론 각자 부모님이 지어 준 'Middle Name'이 포함된 매우 긴 이름이 있지만, 실 생활에서는 부르기 힘든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Nick Name'을 즐겨 사용합니다. 심지어 필리핀 대통령도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라는 긴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봉봉' (Bongbong) 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이니, 'Nick Name'이 얼마나 삶 속에 깊숙하게 일반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또', '따따', '아이 아이', '뽀뽀', '마마', '빙빙' ...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저희를 도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가장 앞서서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건축 작업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애칭 앞에 '형제' (Brother)와 '자매' (Sister)를 붙여서 언제나 정답게 부르는 선교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디고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헌신하는 부부들이 있고, '장학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학교 교사가 되고, 결혼을 하여,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 와 같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인근 '익핏' 지역에 Out Reach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교회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성장한 부부도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초라한 개인들이었고, 가정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작은 일에 충성되게 섬기는 중에, 이제는 어느덧 자신들도 놀랄 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2023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주님께서 열어 주실 새해를 기대하며,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실 새해 사역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마띠 은혜교회'를 통한 사역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변 마을을 복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모두들 성령 충만으로 사기가 충천합니다. 할렐루야!

'디고스 예일교회', '아팔라야 예일교회', 그리고 이제 '마띠 은혜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만으로는 이러한 막중한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을 기쁨과 기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그저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12월, 거의 한 달 동안 각 부서별로 성탄 축하 찬양과 율동, 그리고 드라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20여명의 찬양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였고, 청년들은 저녁마다 Christmas Carol를 부르며 각 교인들과 이웃 집들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일찌감치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탕, 초콜릿, 빵, 주스 등이 담긴 Goodie Bag을 나누어 주어 기쁨을 더했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식사를 하고, 게임도 하고, 각자 일인당 100 페소 (\$1.80)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여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이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8)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시한번 다짐하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다나오 섬, 디고스 지역의 세번째 교회인 '마띠 은혜교회'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저희 부부는 집이 아닌, 디고스 예일교회 사택에 거주 하며 매일 건축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다나오 섬 북쪽 지역에서 진도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여진만 1,400 여 차례가 계속되어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무런 안전 사고 없이 건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기초 벽 공사가 끝나고, 육중한 철근 트러스트도 성전 기둥 위에 올려졌습니다. 오로지 도르래와 밧줄,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가슴을 졸이는 작업이어서, 시종 일관 기도 밖에는 옆에서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교실과 부엌, 그리고 교실의 기초 벽 공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침내 사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형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친교실과 교실 기둥 위에 트러스트를 올리고, Metal Screen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붕을 덮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썩록 공사가 끝나는 그 날까지, 안전 사고 없이 순적하게 건축이 진행되어, '마띠 은혜교회'를 통하여 황무지와 같은 이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마 22:30) 보살피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 기독교 강요 4장 1.4 - 교회의 기능과 역할)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